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175>

JCCT 2023-1-23

코로나19 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car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서보석*, 최종순**, 김현화***

Seo Bo-seok*, Choi Jong-soon**, Kim hyun-hwa***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돌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전라남도 Y에 소재한 장애아동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를 감소 및 개선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차별 없이 새로운 가족으로 포용할 수 있는 부모효능감의 융합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돌봄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자존감, 장애인 복지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perceived by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parenting efficacy. This survey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using survey data conducted on 140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in Y, Jeollanam-do.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aring stress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lower the self-esteem. Second,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had an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are stress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a convergence practice strategy has been proposed to reduce and improve the care stress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and parenthood efficacy at embraces them as part of a new family without discrimination i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Key words : COVID-19, Care Stress, Parenting Efficacy, Self-esteem, Welfare for the Disabled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참여저자)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28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28,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kongsil73@naver.com

Dept. of Hanil Jangshin University, Korea

1. 서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은 감염병 위기 상황 속 심리적 불안 상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생활과 감정들로 인해 장애인 가족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특히, 일상생활 부족과 문화생활의 어려움, 사회참여 부재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가족 내 부담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2].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자녀의 가족 내 돌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던 40대 어머니가 돌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복지 체계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은 일상의 재택화와 원격화로 이어졌고, 등교수업에도 존재하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가정 내 온라인교육 지원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돌봄에서 오는 부담감을 가중시켰다[3].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낮은 지능과 사회적 기술, 미흡한 정서 표현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괴롭힘, 따돌림 등을 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데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우울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부모의 지속적 통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유발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 장애아동은 과격한 문제행동이나 욕설 등으로 표출하기도 한다[4].

장애자녀 부모는 비장애 자녀의 부모보다 다양한 양육 문제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5]. 부모는 장애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제한된 사회생활과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서비스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한 심한 돌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으로 인한 지속적인 돌봄 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와 행동적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뿐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어려움을 낳는다[6]. 이에 과도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의 질과 아동의 행동 문제와 가족 체계 갈등으로 이어져 가족의 안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7].

이와 같이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부모의 과도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양육효능감이 돌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8]. 이때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지각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코로나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서비스의 중단은 돌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 양육효능감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한 장애자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할 시점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로써 의미가 있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강점을 인식하여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삶이 된다[9]. 돌봄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과 적절한 정도의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대한 해결의 동기가 높게 된다[10]. 이러한 보호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 인식, 성격 및 행동을 이해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이 평가에 초점을 둔다[11]. 이에 장애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성장과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부모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따라 양육 효능감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될 때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12].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떠한 인생 역경에도 맞서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부모가 장애자녀를 많은 시간 돌보게 될 때, 신체 및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도 자아존중감이 높게 되면 이를 잘 견디는 내적인 힘으로, 스트레스 환경을 잘 이겨내어 긍정적인 돌봄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돌봄 스트레스가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자녀 돌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황에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장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도입하여 그 영향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고찰

코로나 19는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가져왔으며 장애를 가진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돌봄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돌봄의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 외에 장애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간병, 돌봄 등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장애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할 때, 소란스러운 경우와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울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 대소변 처리가 어렵고 이동능력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높다.

이러한 돌봄 스트레스는 장애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힘든 적응 과정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가족 전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돌봄 스트레스로 긴장감, 좌절감, 우울 증상이나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으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 의사소통, 교육 등 전반적인 양육을 위한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모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념 또는 믿음으로 이는 양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다. Maslow(1954)는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두 가지 형태인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적 자아존중감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적절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13].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Y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과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이용 장애자녀의 양육부모를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20부 중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18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애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nd-Walston과 Wandersman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강원국과 오가영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15]. 본 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장애부모의 코로나 시기 돌봄스트레스의 변화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굿네이버스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16]. 본 척도는 코로나 19의 급격한 감염확산으로 돌봄부담에 대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 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0.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수준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자녀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7].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118명 중 여성이 91명(77.1%)으로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모의 평균연령은 49.2세로 나타났다. 양육부모의 경제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75명(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장애정도 심한장애가 78명(66.1%)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ommon characteristics of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variables	category	number	percentage
sex	male	27	22.9
	female	91	77.1
age		49.22(10.62)	
economic status	bad	36	30.5
	average	75	63.6
	good	7	5.9
Degree of child's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78	66.1
	mild disability	40	33.9

2.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19로, 118명의 응답자

들은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대략 보통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돌봄 스트레스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24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category	variables	number	Min.	Max.	Mean	S.D.
dependent variable	Parenting Efficacy	118	1.00	4.89	3.19	.74
parameter	self esteem	118	1.00	4.90	3.24	.73
independent variable	caring stress	118	1.00	5.00	2.89	.92

3. 코로나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와 공차한계(Tolerance) 그리고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0.620이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1단계 분석에서는 돌봄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분석에서는 돌봄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돌봄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돌봄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여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제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모델1에서는 코로나 19시기에 장애 자녀 돌봄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제거하고 종속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통제변수인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돌봄스트레스($\beta=-.186$, $p<.05$)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beta=.603$, $p<.001$)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for disabled children and parenting efficacy

classification		model 1			
		B	β	t	
constant term		1.739		3.198**	
control variable	sex(0=male, 1=female)	.050	.029	.312	
	age	.005	.077	.810	
	economic status	.261	.239	2.603*	
independent variable	care stress	-.164	-.238	-2.510*	
mediation variable	Ego respect				
R ²		.105			
Adj. R ²		.073			
F		3.298*			
R ² Change		.105			
F Change		3.298*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2.074		3.684***	1.588		3.488***
-.059	-.034	-.363	-.081	-.046	-.616
.003	.043	.448	-.002	-.034	-.454
.263	.239	2.545*	.076	.069	.895
-.099	-.137	-1.424	-.130	-.186	-2.472*
			.606	.603	7.984***
			.102		
			.406		
			.069		
			.379		
			2.736*		
			15.289***		
			-.003		
			.304		
			-0.562*		
			12.553***		

*p<.05, **p<.01, ***p<.001

4.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Sobel test 결과는 장애자녀 돌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z=-2.255$, $p<.05$). MacKinnon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검증결과는 ± 1.96 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Sobel test 검증의 결과는 ± 1.96 보다 크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소벨 테스트

Table 4. Sobel test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tandard error a)	estimate (standard error b)	Zab
caring stress →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164 (.071)	.606 (.058)	-2.255*

*p<.05

이상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적극적인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서비스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양육자를 위해 가족지원체계와 사회적지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밝히고 양육효능감 향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애 자녀의 주양육자는 여성(77.1%)이며 자녀의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66.1%로 심한 장애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족내 돌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 양육자의 돌봄스트레스는 증가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가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부모에 대한 돌봄스트레스 경감과 자아존중감은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장애가족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자녀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자조집단 프로그램이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돌봄분담 또는 지원서비스와 연계 등을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에 따른 후속연구에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 후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E. J. Kim & J. Y.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ing Experience of Primary Caregiv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the Age of COVID-19," Vol. 23, No. 1, pp. 1-32, 2022. DOI:10.19049/JSPED.2022.23.1.01
- [2] S. K. Park, S. W. Lee & S. M. Kim, "The Effect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maintain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aily-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 40, No. 40, pp. 123-149, 2018. DOI:10.22779/kadw.2018.40.40.123
- [3] S. H. Kim, E. H. Park & Y. S. Lee, "Exploring th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mot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overlapping physical disabilities for remote classes according to the pandemic situ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64, No. 41, pp. 45-65, 2021, DOI:10.20971/kcpmd.2021.64.4.45
- [4] J. O Shin. "To Reduc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roup Play Therapy Case Study-Focusing on the Daytime Protection Center Us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3, pp. 176-184, 2020, DOI:10.22156/cs4sMB.2020.10.03.176
- [5] H. J. Kim, "The Influence that Parents of Disabled Children's Parenting Stress has on Abuse of Disabled Children: 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Vol. 18, No. 1, pp. 113-134, 2014.
- [6] K. R. Kim & S. S. Kim, "Home Environmen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Core Competency of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ypes of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8, No. 2, pp. 279-304, 2012.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for the Disabled," 202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5228.
- [8] I. H. Lee, & S. Y.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Vol. 22, No. 1, 69-81, 2013.
- [9] J. E. Jo, J. E. Lee & S. B. Kim,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53, No. 3, 123-142, 2018. DOI:10.15861/kjse.2018.53.3.123
- [10] Y. M. Jeong,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4, pp. 181-186, 2022. <https://doi.org/10.17703/JCC T.2022.8.4.181>
- [11] Y. J. Jeong & J. H. Le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27, No. 5,

- pp. 949–969. DOI : 10.35594/kata.2020.27.5.004
- [12]E. S. Hong, “The Relationship Amo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Life-Quality of their Par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Self-Esteem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8, No. 3, pp. 365–380. 2013.
- [13]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per & Row. 1954.
- [14]J. Giband-Walston & L. P. Wallston,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aiaion, Toronto. 1978. <https://www.bristol.ac.uk/media-library/sites/s/sps/documents/c-change/parenting-sense-of-competence-scale.pdf>
- [15]W. G. Kang & O. K. Young. “A Effect of Animal-Assisted Therapy Using Theraplay 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61, No 1, pp. 393–412,. 2021. DOI:10.23944/Jsers.2021.03.60.1.19
- [16]Goodneighbors. 2020. COVID–19 and children’s live: Children’s Disaster Response Survey.
- [17]D. P. MacKinnon et al.,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Vol. 8, No. 1, pp. 1–35, 2002. DOI:10.1037//1082-989X.7.1.83